



남부고시온라인 나래국어 이유진 2014 군무원 국어 해설

문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옳은 것은?¹⁾

- ① 내 신발은 3년을 신었는데도 똥지[달찌] 얹었다.
- ② 침으로 서까래를 엮고[억꼬] 역새로 지붕을 덮었다.
- ③ 그는 심심할 때면 시를 윙기도[윙기도] 하였다.
- ④ 그녀는 너무 외곬으로[외골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 2. 제시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계절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²⁾

(가) 바람납희 바람나니 봉창(篷窓)이 서늘코야
 녀름 바람 덩홀소나 가느대로 빙시겨라
 아희야 북포남강(北浦南江)이 어딤 아니 도홀리니
 (나) 어와 저브러간단 안식(安息)이 만당토다
 ㅁ눈 눈 빠린길 불근곳 훑터딘데 흥(興)치며 거러가서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의 넘도록 송창(松窓)에 비겨잇자
 (다) 우는거시 벽구기가 프론거시 버들습가
 어촌(漁村) 두어집이 닛속의 나락들락
 말가흔 김픈소희 온간고기 뛰노느다
 (라) 슈국(水國)의 ㅁ올히드니 고기마다 슬져인다
 만경당파(萬頃滄波)의 슬묵지 용여(容與) 흥자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도타

- ① (가) - (라) - (다) - (나)
- ② (가) - (라) - (나) - (다)
- ③ (다) - (가) - (라) - (나)
- ④ (다) - (라) - (나) - (가)

문 3. 다음 중 밑줄 친 어휘가 잘못 쓰인 것은?³⁾

- ① 그는 고개를 기웃하게 하고서 골몰히 생각에 잠겨있다.
- ② 그들은 다붓한 강가에 앉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③ 그는 가붓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것이 오래 여행할 사람 같지 않았다.
- ④ 그녀는 사립성이 좋아서 누구와도 버슷하게 지낸다.

문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게 쓰인 것은?⁴⁾

- ① 그 말은 신에 대한 모독(侮瀆)이나 마찬가지로이다.
- ② 지나친 규제(規除)는 오히려 독이 된다.
- ③ 그는 가정 파탄(破綻)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④ 비행기는 지상의 유도(誘道)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하였다.

문 5. 다음 중 가장 옳게 쓰인 문장은?⁵⁾

- ① 조카는 여섯살바기 어린아이이다.
- ②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였더니 팔과 다리가 얇아졌다.
- ③ 그는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사과하므로써 책임을 면하려 하였다.
- ④ 한 구조대원은 먼저 탈출하던 선원들과 부딪혀 팔이 부러졌다.

문 6. 다음 단위에 표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⁶⁾

- ㄱ. 채소·과일 한 접 - 100개
- ㄴ. 오징어 한 축 - 20마리
- ㄷ. 고등어 한 손 -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친 2마리
- ㄹ. 바늘 한 쌍 - 크고 작은 바늘 20개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7. 다음 외래어 표기 중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⁷⁾

- (가)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 (나) 컨셉트(concept)
- (다) 스테미나(stamina)
- (라) 랑데뷰(rendez-vous)
- (마) 밀크셰이크(milk shake)
- (바) 프로포즈(propose)
- (사)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

- ① (가), (다), (사) ② (가), (라), (마)
- ③ (나), (다), (바) ④ (다), (바), (사)

문 8. 다음 제시된 모음 중 훈민정음에서 지칭하는 28자에 해당되는 것은?⁸⁾

- ① ㅞ ② ㅟ ③ ㅠ ④ ㅡ

문 9. 제시된 고유어 중 '귀가 얇아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⁹⁾

- ① 가린주머니 ② 천둥벌거숭이
- ③ 망석중이 ④ 책상물림

문 10. ㉠과 ㉡에 들어갈 단어와 조사로 알맞은 것은?¹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 | | | |
|----------|----------|---|---|
| ㉠ | ㉡ | ㉠ | ㉡ |
| ① 바람소리 의 | ② 바람소리 의 | | |
| ③ 바람소리 에 | ④ 바람소리 가 | | |

문 11. 다음 중 ‘목불식정(目不識丁)’과 가장 비슷한 의미의 한자성어는?¹¹⁾

- | | |
|--------------|--------------|
| ① 각자무치(角者無齒) | ② 숙맥불변(菽麥不辨) |
|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 ④ 문일지십(聞一知十)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 13]

요사이 우리 사회는 터진 붓물처럼 마구 흘러드는 외래 문명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세계화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얼마 전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 지구 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 언어로 세운 문화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토록 긍지를 갖고 있는 우리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략]

우리나라에도 몇몇 도입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예전엔 청개구리가 울던 언뜻에 요즘은 미국에서 건너온 황소개구리가 들어앉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삼키고 있다.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심지어는 우리 토종 개구리들을 먹고 살던 뱀까지 잡아먹는다. 토종 물고기들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블루길에게 물길을 빼앗기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보다 남의 나라에서 더 잘 살게 된 것일까?

제 아무리 대원군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 문명의 유입을 막을 길은 없다.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결코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아끼지 않은 문명은 외래 문명에 텃밭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싶다. 내가 당당해야 남을 수용할 수 있다.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한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울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청개구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문 12. 위 글과 다음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¹²⁾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創造)가 단순한 과거의 묵수(墨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문화(外來文化)의 모방(模倣)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 ② 우리의 문화를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 ③ 외래문화를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 ④ 우리 문화의 존속을 위해서는 외래문화의 수용을 막아야 한다.

문 13. 위 글의 밑줄 친 부분과 내용 전개 방식이 다른 것은?¹³⁾

- ①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불러낸다. 컴퓨터도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입·출력, 저장 절차가 인간과 비슷하다.
- ②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 수단이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 ③ 험난한 사막에도 여행자를 위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힘든 인생에도 아픔을 함께 해줄 소중한 친구가 있다.
- ④ 미생물은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 어느 때까지는 잘 자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이 고갈과 노폐물의 축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인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문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관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¹⁴⁾

그나마 일표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실망을 하고 그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 돌아선다.
-강경애, 「인간문제」

- ① 머리가 젖어
- ② 머리를 싸고
- ③ 머리를 빠뜨리고
- ④ 머리가 빠지도록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수정 방안이다. 옳지 않은 것은?¹⁵⁾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그것은 육체적 노동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정신적 노동을 감당하는 일명 ‘감정 노동자’의 삶은 피로 그 이상의 고통을 수반한다. 육체적 노동은 하룻밤 쪽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정신적 노동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는 약 30년 전,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엘리 러셀 혹실드가 쓴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_____ . 저자는 갈수록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감정노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그 후유증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이 성장할수록 이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손님은 왕’,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바람직한 고객정신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만성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감정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무너지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 ‘웃을수록 병드는 감정 노동자의 비애(EBS)’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② 문단의 완결성을 고려해 ㉡에는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첨가해준다.
 ③ ㉢은 문장성분의 호응을 고려해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로 고친다.
 ④ ㉣은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과반수의’로 고친다.

문 1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¹⁶⁾

- ① 그녀는 얼굴이 너무 하얗서 꼭 아픈 사람 같다.
 ② 어느새 어머니의 이마와 눈가에 잘다랗게 주름이 잡혔다.
 ③ 그는 재산이 붙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
 ④ 나는 월간지를 달달이 구독한다.

문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¹⁷⁾

·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 애국가 ()이 있었습니다.
 · 정도전이 새로운 법전을 ()하였다.

- ① 제창(齊唱) - 재창(再唱)
 ② 제창(齊唱) - 제창(提唱)
 ③ 합창(合唱) - 제창(提唱)
 ④ 합창(合唱) - 제창(齊唱)

문 18. 다음 글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¹⁸⁾

(가) 정부에서 내놓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석유 의존도 축소, 둘째 에너지 효율성 개선, 셋째 그린에너지산업 성장 동력화다. 사실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는 아니다.

(나)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이 국가적 규모의 정책 기조와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60년 앞을 내다 보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천명했으므로, 신재생에너지를 산업분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미 단순 경제 성장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퍼센트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을 강제할 것이다.

-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다) - (나) - (가)

문 19. 다음 계획에 맞는 토의의 방식은?¹⁹⁾

1. 주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
 2. 참가자: 사회자 1명, 전문가 2명, 청중 50명(선생님과 학생들)
 3. 참가자의 역할

1) 사회자: 사회자는 토의가 시종 화제에 집중되도록 통제하고 조절하며 청중의 질문을 다시 조직해서 연사에게 전달한다.
 2) 전문가: 토의를 위한 간략한 주제 발표나 의견 제시를 할 뿐 강의나 연설은 하지 않는다.
 3) 청중: 질문 형식을 통해 토의에 참여하게 된다.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① 포럼
 ② 패널토의
 ③ 원탁토의
 ④ 심포지엄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²⁰⁾

노자의 형이상학 체계는 구체적인 사물들에 선행해서 두 가지 존재 원리가 먼저 존재한다는 간단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과 구분되지만 동시에 다른 개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개체와 개체가 구별되는 원리를 ‘유(有)’ 또는 ‘유명(有名)’이라 하고 앞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될 원리를 ‘무(無)’ 또는 ‘무명(無名)’이라 부른다.

노자는 모든 개체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과 눈에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자의 측면을 관계의 원리인 무명(無名)이나 도(道)로, 후자의 측면을 식별의 원리인 유명(有名)이나 명(名)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노자의 생각이 옳다면 개체들은 도와 명이라는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자는 관계의 원리로서의 도(道)를 개체의 원리로서의 명(名)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만물의 근원적인 관계 원리로서의 도(道)를 모든 개체들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원리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개체들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 개체들은 자신을 낳은 관계 원리, 즉 도(道)를 먼저 회복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① 모든 개체들은 존재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더 우월하다.
- ② ‘무(無)’란 다른 것과 관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상징하는 원리이다.
- ③ 개체 간에 ‘나’와 ‘타자’라는 구별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관계가 가능해진다.
- ④ ‘도(道)’란 세상 모든 만물들 간의 관계에 절대적 매개로 작용한다.

문 2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²¹⁾

- ① 공부가 안 될 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② 자주 가던 식당의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다.
- ③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 ④ 그녀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문 22. 문장의 호응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²²⁾

(가) 우리가 한글을 세계의 여러 문자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 과거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가 피지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교한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현정권의 정치 선전도구임이다.
(다) 어렸을 때 나는 중창단을 지휘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발의 부작용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당 부처에 지시하였다.
(마)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차별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마)

문 23. 제시된 표준발음 규정에 따라 옳게 설명한 것은?²³⁾

[제5항] ‘ㅈ ㅊ ㅋ ㆁ’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계시다’의 ‘계’는 이중모음이 쓰였지만 [계시다]와 같이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민주주의’는 [민주주이]로 ‘우리의’는 [우리에]로 발음해도 무방하다.
- ③ ‘다쳐’는 [다쳐/다처]로 둘 다 발음할 수 있다.
- ④ ‘희망’은 [희망/히망]으로 둘 다 발음할 수 있다.

문 24.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²⁴⁾

기계문명이 인간에게 준 공로는 크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고, 과학을 끝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계인을 한 가족처럼 가깝게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준 피해 또한 크다. 기계문명에 인간이 종노릇을 하게 된 사실이 그것이다. 도시의 거대한 공장에는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인간도 마침내 기계가 되었다. 생각도 행동도 사상도 기계의 영향 아래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나, 자연과 영원과 본래부터의 인간성이다. 있어야 할 것은 없어지고, 있어서 안 될 것들이 인간 속으로 침투해 왔다. 어떻게 하면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옛날의 자연으로 회복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 ①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 후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한다.
- ② 기존의 주장들을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 ③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한 후 문제를 제기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 ④ 필자의 주장과 대립되는 주장을 제시한 후 이를 비판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운다.

문 25.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연 캠페인 문구는?²⁵⁾

은유와 대구의 방법을 이용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 ① 흡연 뒤에 남은 것은 쾌락 뒤에 병든 심신뿐이지만
금연 뒤에 남은 것은 온 가족의 건강한 행복입니다.
- ② 늘어가는 담배만큼 줄어드는 내 주머니
금연하는 시간만큼 줄어드는 건강 걱정
- ③ 담배 피우는 골목은 향불 피우는 저승길
금연하는 골목은 희망 피우는 생명길
- ④ 연기 없는 화장실에는 앞사람의 양심이 머물고
연기 남은 화장실에는 뒷사람의 양심이 머물습니다.

♥ 3월 개강 이유진의 특별한 국가직 모의고사 ♥

매주 2회의 완벽한 실전 모의고사

(기출 난도 수준 1회+고난도 1회)

+ 변화하는 국가직에 맞춤 독해 플러스 문항!

국가직은 55점을 독해에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독해 훈련을 동형모의고사반에서 잡습니다!

이게 가능해? 받아 본 적 없는 개인별 맞춤 콘텐츠!

현장 수강시 개인별 약점 오답문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틀린 문제와 유사 유형을 더 풀어보자!)

1) ④

[오답해설]

① 닳지→[달치], ② 엷고→[얼꼬], ③ 울기도→[웁꺼도]

2) ③ (다)봄(벽구기, 벼들숨)→(가)여름(너름브람)

→(라)가을(가을)→(나)겨울(ㄱ눈눈, 설월)

3) ④ ‘벼슬하다’는 ‘사이가 어울리지 않아 어색함’을 의미하므로 ‘사قم성이 좋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기웃하다: 고개나 몸을 한쪽으로 조금 기울이다.

② 다붓하다: 조용하고 호젓하다. 가까이 붙어 있다.

③ 가붓하다: 가벼운 듯하다.

4) ③ ‘파탄(破綻)’은 깨뜨릴 파, 터질 탄으로 쓴다.

[오답해설]

① 모독(冒瀆): (어떤 존제를) 권위나 명예나 위신 등을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려 욕되게 하는 것 [冒 무릅쓸 모 / 瀆 더럽힐 독]

② 규제(規制): ① 규정에 따른 통제 ②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거나 금하는 것 [規 법 규 / 制 절제할 제]

④ 유도(誘導): ①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② 전기와 자기가 전기장, 자기장 안에 있는 물체에 미치는 작용. 도체가 대전체나 자석에 접근할 때 전기 또는 자기를 띠게 하는 현상. ③동물의 배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의 분화를 일으키는 작용 [誘 끌 유 / 導 인도할 도]

5) ④ 부딪히다

1. ‘부딪다(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의 피동사.

2. ‘부딪다(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다)’의 피동사.

[오답해설]

① 여섯 살바기 → 여섯 살배기

② 얹아졌다 → 가늘어졌다

③ 사과하므로써 → 사과함으로써

6) ③ 바늘 한 짚은 바늘 24개를 의미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표현이다.

7) ①

[오답해설]

(나) 컨셉트 → 콘셉트 (라) 랑데뷰 → 랑데부

(마) 밀크셰이크 → 밀크셰이크 (바) 프로포즈 → 프러포즈

8) ② 훈민정음에서 지칭하는 28자 중 모음은 11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9) ③ ‘망석중이’는 나무로 다듬어 만든 인형을 의미하는 말로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이룰 때 쓰이는 말이다.

[오답해설]

① 가린주머니: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천등별거승이: 함부로 날뛰거나 철없이 덤벼거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④ 책상물림: 책상에서 공부만 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0) ② 바람과 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는 우리의 기상임을 의미하는 애국가 가사이다. ‘바람서리’와 ‘의’가 들어가야 알맞다.

11) ② 속맥불변(菽麥不辨):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 고무래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 정(丁)자인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목불식정(目不識丁)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오답해설]

① 각자무치(角者無齒): 뿔을 가진 자는 이가 없다는 의미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말 귀에 부는 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룸

④ 문일지십(聞一知十):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영리한 사람을 이르는 말

12)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3) ②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4) ③ 노동자들이 실망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몹시 실망하고 낙담하였다는 의미의 ‘머리를 빠뜨리고’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머리가 젖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몰들

② 머리를 싸다: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하여

④ 머리가 빠지다: 일이 복잡해 계속 신경이 쓰이다.

15)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6) ③

[오답해설]

① 하야서 → 하에서, ② 잘다랗게 → 잘다랗게, ④ 달달이 → 다달이

17) ② ‘제창(齊唱)’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소리로 외침을 의미하고, ‘제창(提唱)’은 어떤 일을 처음 주장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해설]

· 합창(合唱):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름

· 재창(再唱): 다시 노래를 부름

18)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9) ①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를 하고 청중과 대화하는 형식의 토의이므로 공개토의(포럼) 방식이 적절하다. ‘포럼’은 공공의 광장에서 공공의 문제를 청중과 공개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이다.

[오답해설]

② 폐널토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3~6명의 참여자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의하는 방식

③ 원탁토의: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

④ 심포지엄: 전문가나 권위자가 공통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

20)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1) ① ‘잘되다’의 반대는 ‘안되다’이다. ‘안될ㅁ뎌’으로 고쳐야 한다.

22) ④ 호응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은 (라), (마)이다.

[오답해설]

(가) 우리가 한글을 세계 여러 문자들과 비교해 보면, 한글이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 식민 지배가 피지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과거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간교한 민족 분열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정치 선전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3) ②

[오답해설]

① ‘다만 2.’에 따라 [계:시다/계:시다] 둘 다 가능하다.

③ ‘다만 1.’에 따라 [다쳐]로 발음한다.

④ ‘다만 3.’에 따라 [허망]으로 발음한다.

24)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5) ③ ‘항불 피우는 저승길(은유)’, ‘굴목은~○○길(대구)’의 표현과 금연하는 굴목은 생명길이라는 내용을 통해 ③이 가장 조건을 잘 충족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